

철도기관 충청지역 시설분과 실무회의 개최

-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단계별 시공에 따른 협력방안 논의 -

충청본부(본부장 김영하)는 6월 22일 철도운영기관(코레일 대전충남본부)과 철도건설, 유지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양 기관 상호협력력을 위한 시설분과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시설분과 실무회의에서 충청본부 건설처(처장 하복수)는 대전도심 단계별 시공과 관련하여 철도운영기관의 배선 및 열차취급 등 협조요청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였고, 철도운영기관에서도 열차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공사추진 및 하자보수 공사 조속 마무리 요청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회의결과 대전도심 급전 2단계 및 '14년 개통예정 준수를 위하여 철도운영기관에서 요청 사항은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공사부서는 열차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책임시공하며, 신설/개량구간의 시설을 인수인계에 대하여 양 기관의 상호 긍정적 의견이 있었다.

양 기관 대표위원은 시설분과 실무회의를 통하여 철도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열차안전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상호 신뢰의 의결기구로 지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충청본부 임상민 기자〉



철도건설의 유종의 미는 자산 적기취득

- 강원본부 관내 준공예정 4개사업 자산취득교육 실시 -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 시설운영처는 6월 19일~22일간 강원본부 소관사업을 대상으로 준공자산 적기취득을 위한 현장 순회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2012년과 2013년 준공예정인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사업의 3개사업의 공사관리관 및 현장 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자산취득 절차 및 자산마스터 작성방법, 간접비 분배 등 실무적인 자산취득 방법을 중점 교육함으로써 자산취득업무 담당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20년(1993~2012년)이며 총사업비 규모 약2조4백50억원으로 각 분야별 30명의 시공사·감리단 직원이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자산취득에 대한 많은 질문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샘플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금번 자산취득 현장교육을 통하여 사업준공 이후 초기에 자산을 취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향후 공단자산의 시스템 회계처리 및 국가귀속 지연을 사전 예방하고, 국가취득을 통해 국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 활용으로 수익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본부 이종철 기자〉



수도권고속철도 수서역사 건설 난항

- 서울시 도시계획위 과다계획 수립 요구 -

공단은 6월 20일 개최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서역 그린벨트(GB)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일부위원의 과다계획 수립 요구로 또다시 보류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공단이 2011년 3월에 제출한 수서역 GB관리계획수립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년 2개월이 지난 5월 23일에 개최하였으나, 심도 있는 소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보류한데 이어 금년에는 노선의 대신도 지하화, 수서역세권 사업을 위한 GB해제와 동시 추진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보류했다.

공단 관계자는 수도권고속철도의 '15년 개통을 위해서는 공기가 매우 촉박하여 이미 타 구간에서는 지하터널 시공을 하고 있으며, 정거장 부문을 대신도 터널로 건설할 사례를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데도 이제 서야 수서역 구간을 지하 분당선 밑으로 더 깊게 터널로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서역세권 개발은 계획단계로서 GB해제 기간이 2~3년 소요되어 2016년 이후에나 착공 가능함에 고속철도건설사업과 병행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수서역 입지에 따라 이미 2011년 5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무시한 채 법적대상도 아닌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고속철도 수서역 건설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2014년 완공자체도 가능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내몰고 있다.

수서역 GB관리계획수립을 위해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세부적인 검토와 사업 설명을 하였고, 본 심의에 앞서 서울시 부시장과 공단 부이사장 간의 협의 등 수차례에 걸쳐 연석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내용을 협의하였으나, 또다시 관계기관 연석회의라는 사유로 재차 연기하는 처사는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GB관리계획수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통과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지속 설득하는 한편 수도권고속철도를 2015년 개통하기 위해서는 GB관리계획 수립과 무관한 지역으로 임시역사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호남본부, 자매결연마을 농촌봉사 활동

- 직원 20여 명 순천시 상사면 쌍지마을 찾아 -

호남본부(본부장 김계웅)는 6월 26일 자매결연마을인 순천시 상사면 쌍지마을에서 사랑의 농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계웅 본부장을 비롯한 호남본부 20여 명의 직원들은 마을 공동 건조장 부지 터 닦기 작업, 마을 청소 및 주민들의 공동 휴식공간인 정자나무 주변 환경정화 작업 등을 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김계웅 호남본부장은 "직원들이 흘린 땀방울이 농도상생(農都相生)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하며, 지속적인 농촌 사랑 봉사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이윤석 이장과 이영순 부녀회장은 호남본부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사람 사는 마을 같다"고 덧붙였다.

〈호남본부 유영달 기자〉



녹색철도연구원, 열림과 나눔 활동 전개

- 판암사회복지관 찾아 따뜻한 사랑나눔 -

녹색철도연구원(원장 서성호)은 6월 20일 사회공헌활동 결연을 맺은 판암사회복지관을 찾아 열림과 나눔 활동을 전개하였다.

지역 내 소외계층과 무의탁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위한 활동으로 청소, 배식활동, 설거지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의 도시락배달 활동을 진행하였다.

녹색철도연구원은 2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복지관을 방문하여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 준비한 생필품과 간식 등을 제공하여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고 있다.

앞으로도 녹색철도연구원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의 따뜻한 사랑나눔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녹색철도연구원 김성호 기자〉



게시판

주요뉴스 (6. 20 ~ 6. 25)

- 연수·원인재 역세권 개발 '본궤도'(경기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경인일보 6. 20)
-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국회 간담회(경북일보 6. 20)
- 한결 수월해지는 교통, 오이도~송도 구간 수인선 이달 중 개통(중앙일보 6. 20)
- 명품 대전역사 신축 길 열리나(한국일보 6. 20)
- '내일 오후 2시, 20분간 에어컨을 끄시다'(동아일보 6. 20)
- 거리로 나온 철도 청소년노동자들(한국일보 6. 20)
- 용인경전철 배상금 7787억원(조선일보 6. 20)
- 용인경전철 사태의 교훈(매일경제 6. 20)
- 1100억원 세금 먹는 김해경전철, 성과급 잔치(조선일보 6. 20)
- 정부, 여수엑스포 '홍행' 지원 총력(무등일보 6. 20)
- 고속철 '동대구~부산' 선로 일부 침하, 최대 5cm 주저 않아...'보강' 공사해도 안전할지 불확실(경향신문 6. 21)
- 순천~광양 복선전철 오늘 개통(서울신문, 국민일보, 서울경제, 무등일보, 광주일보 6. 21)
- 철도시설공단 '사회공헌' 확대(한국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6. 21)
- 지하철 5호선 서울 상일동~하남 김당산 연장(중앙일보 6. 21)
- 수인선 17년만에 부활...주변권도 들쭉(동아일보 6. 21)
- KTX 나주역 경우' 시민단체 상경 시위(전남일보 6. 21)
- "춘천~속초 鐵 국가정책으로 건설하라"(강원일보 6. 21)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더 늦어지면 안 돼(조선일보 6. 21)
- 코레일 '수천억 쌓아두고 쥐꼬리 배당' 롯데역사 '10년치 회계장부 넘기라나...' (한국일보 6. 21)
- 불신 자초하는 KTX 말 바꾸기(중앙일보 6. 21)
- 적자 예상된 도시철도 처음부터 막아야(국민일보 6. 21)
- 작년 공공기관 청원 내 청년 채용률 3% 달성(서울경제, 서울신문 6. 21)
- 고속철 동대구~부산 애초부터 부실(경향신문 6. 22)
- '마지막 지그재그 열차 타러 오세요'(강원일보 6. 22)
- KTX 수서역 인·허가 놓고 '신경전' (한국경제 6. 22)
- KTX 정음역사 '축소 신축' 사실상 합의(전북일보 6. 22)
- 11호선 먹는 의정부경전철(조선일보 6. 22)
- 김해경전철 '정상화 방안' 갈등...운행중단 우려(경향신문 6. 22)
- "춘천~속초 고속철도 정부 선두차 해아 한다"(강원일보 6. 22)
- 공직사회,규제의 지뢰밭 벗어나려면(서울신문 6. 22)
- 절전·절수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설때(경인일보 6. 22)
- 라이온스 세계대회 개막...5만5000명 함께 한다(국제신문 6. 22)
- 김광재씨 예산절감법 '일하는 방식부터 바꿔라'(아시아경제 6. 23)
- 수인선 30일 개통, 옛 소금열차가 시민의 발로 재탄생(서울경제 6. 23)
- 원주~강릉 복선전철 6·8공구 시공사 선정(강원도민일보 6. 23)
- 오피니언, 스위치백 철도(강원일보 6. 23)
- 사설, 선로 침하 경부고속철, 정밀 안전진단 시급하다(경향일보 6. 23)
- 철도시설공단 1493억 예산 절감(중도일보 6. 25)
- "포천 철도노선 사업성 있다"(인천일보 6. 25)
- 인천 지하철 퇴근시간대 6분 간격 운행(조선일보 6. 25)
- 4대강... 경부고속철... 새만금 간척... 특한국책사업 발목잡기 "천문학적 비용손실-국론 분열 이제 그만"(동아일보 6. 25)
-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물류대란 오나(서울신문 6. 25)
- 오피니언, 수인선에 뭍을 싣고(경인일보 6. 25)
- 러, 北 채무 90% 탕감 추진 가스관·철도사업 노린 듯(영남일보 6. 25)
- 비용 절감·현장 소통... 부채 415억 상환(한국경제 6. 26)
- "한·러 철도·가스관 함께 준비" 손잡은 강원도·연해주(중앙일보 6. 26)
- 폭염특보 댄... 학교장 재량으로 단축수업 또는 임시휴업(중앙일보 6. 26)
- 이 불행에... 내일 건설노조, 모래 민노총 '출파업'(한국경제 6. 26)
- 수인선 오이도~송도 구간 30일 개통(중앙일보 6. 26)
- 의정부경전철 29·30일 무료운영(경기일보 6. 26)
- 레일바이크, 삼척-정선 경계 이관다(동아일보 6. 26)
-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73년 여정 끝내 추억열차 (중앙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6. 27)
- 원주~강릉 철도 건설의 첫 삽을 뜨며(강원일보 6. 27)
- KTX 포함 직결선 WPC 버스거더 공법 채택(경북일보 6. 27)
- 철도시설공단 파업 대책본부 운영(서울경제, 충청투데이 6. 27)
- 서울시, KTX 수서역 신설 일단 보류 국토부 '국책사업 발목잡기' 비난(한국일보 6. 27)
- 철도공단 호남본부 농활(전남일보 6. 27)
- 전운 감도는 수인선 개통식(경인일보 6. 27)
- 원주~여주 전철 타당성조사 발표 연기(강원일보 6. 27)
- 내용 알차고 교통도 편한데 관객수가 영... (동아일보 6. 27)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북청지역 신설' (충청투데이 6. 27)
- 정부 '인천공항 지반매장 법개정 조속 추진'(동아일보 6. 27)
- 92억 손실 보전...의정부 경전철 '불안한 출발' (한국일보 6. 27)
-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태 점검(동아일보, 경성일보 6. 27)

경조사

■ 영남본부 황창동 과장 모친상
-발 인 : 2012년 6월 26일